

★ 1월 19일(수) 11:3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보도 자료</b>	 <b>교육과학기술부</b>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b>G20 SEOUL SUMMIT 2010</b>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자료문의> ☎ 2100-6396 교육과학기술부 진로직업교육과 과장 김환식, 사무관 유희진  
☎ 2287-628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경쟁력팀 국장 이운호, 서기관 서기웅  
※ 첨부 : 주요과제별 주관부처(서) 및 연락처

## 교과부·국경위 공동 **마이스터고·특성화고생을 위한**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 마련

- ▶ 졸업생 채용시 고용투자장출세액 공제 확대(1,500만원→2,000만원)
- ▶ 취업계약 입학제와 취업인턴제 참여비용 세액공제 제도 도입
- ▶ 공공기관은 졸업생 채용 목표제 도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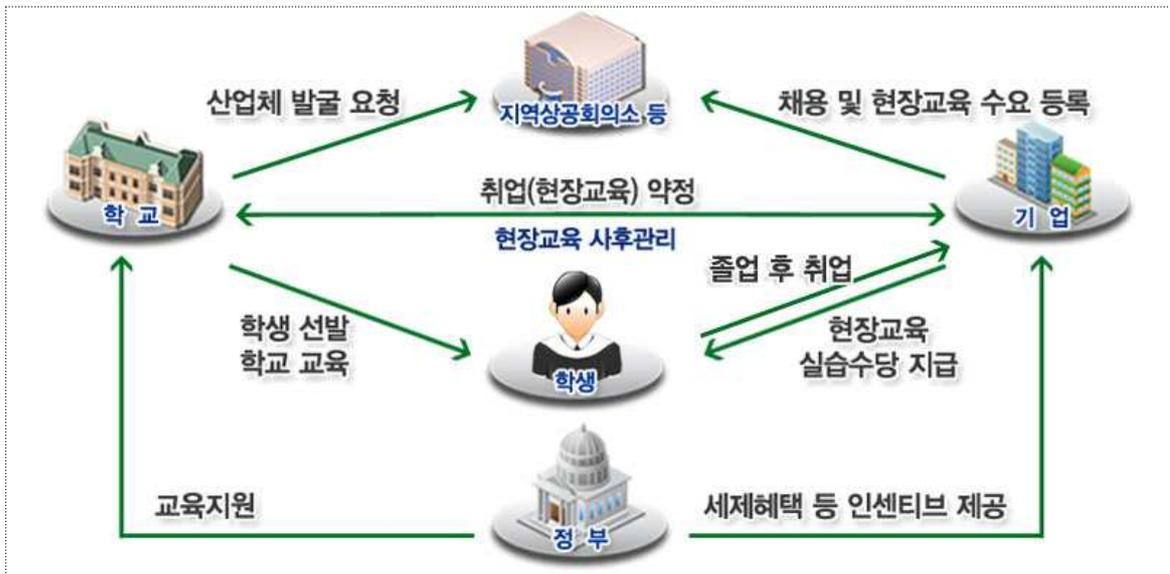
- 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는 1월 19일(수)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24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기술력 증진, 생산력 확대, 일자리 복지를 위한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보고·확정하였다.
- 교과부는 '16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간 산업발전의 기틀을 담당했던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감소함에 따라,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채용을 확대하고,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난 10월부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준비해 왔다고 본 방안의 수립배경을 밝혔다.
- 정부가 마련한 「기술력 증진, 생산력 확대, 일자리 복지를 위한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은 다음과 같다.

# 현장 중심 직업교육 강화

## 1 | 마이스터고 : "취업계약 입학제도" 도입

- 마이스터고에 "취업(현장교육) 계약 입학제도"가 도입된다.
  - 취업계약 입학제도는 산업체와 학교가 취업(현장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을 선발, 학교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하는 제도로써, 정부는 '11~'12년간 2~3개의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 취업계약 입학제도 시행방안(안) >



## 2 |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 "취업인턴제" 도입

- 또한, 학생들의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취업을 확대하고, 기업의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취업인턴제"가 도입 · 시행된다.
  - 대상은 전학년 학생이며, 참여학생은 기업으로부터 실습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12년간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확산을 추진한다.

3

**실행방안 : 참여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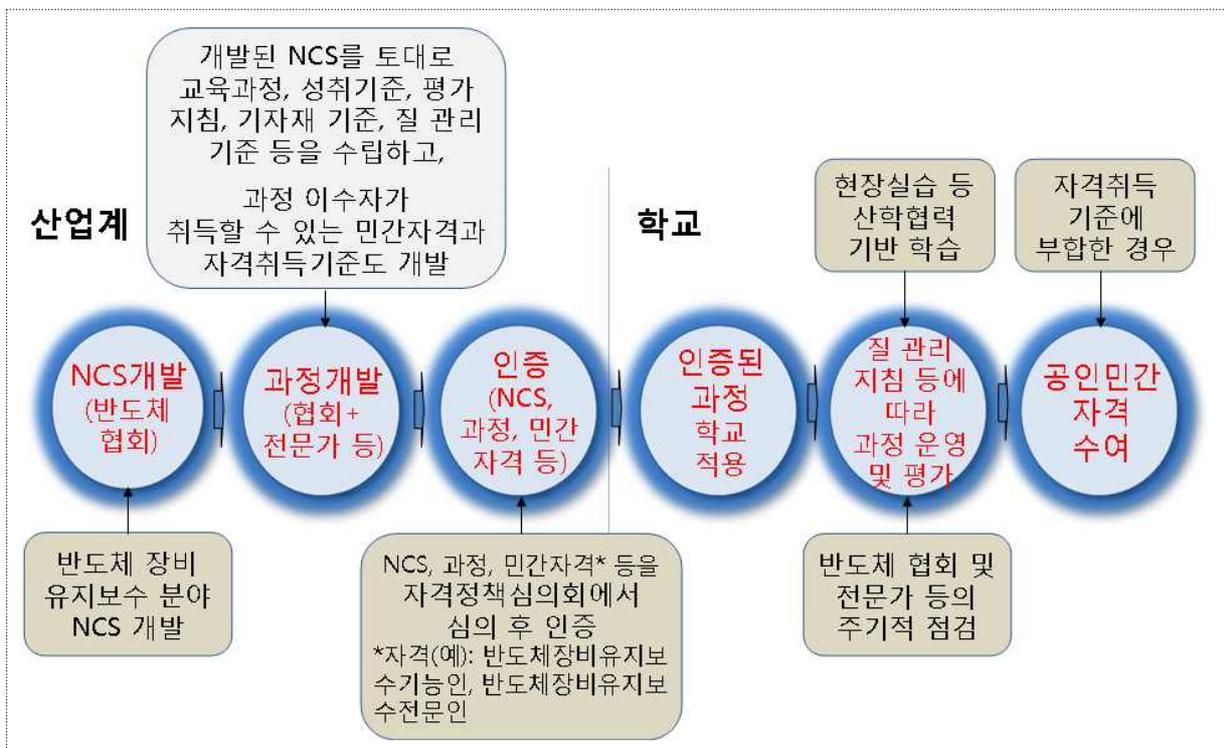
- 새로 도입되는 취업계약 입학제도와 취업인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되었다. 소요경비를 일반 R&D 세액공제대상(중소기업 25%, 대기업 3~6%)에 포함시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우수 산업체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 추천도 확대한다. (\* '11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
- 실습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현장교육 도중 발생하는 산업 재해 등에 대한 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될 계획이다.

4

**과정형 공인 민간자격 도입**

- 아울러, 정부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과정형 공인 민간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계의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취득기준에 부합한 학생에게는 추가 검정없이 공인 민간자격을 부여하도록 자격기본법령을 개정할 것임을 밝혔다.

<과정형 공인 민간자격 개념도(예: 반도체장비유지보수 분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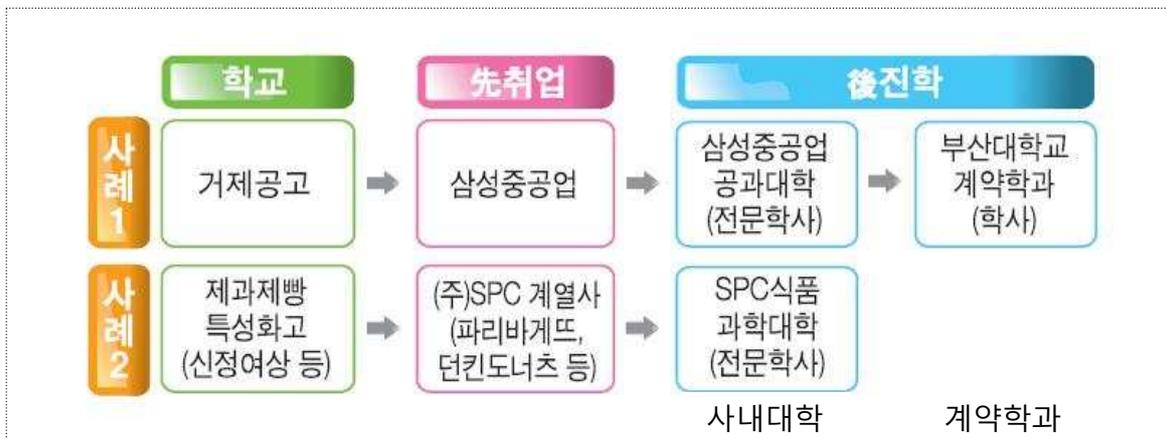


# 취업과 학업의 병행 여건 개선

## 1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 활성화

-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의 경우, 취업과 동시에 입학할 수 있는 "취업조건부 과정"을 신설하고, 기업이 직원을 채용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 진학하도록 할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 또한, 자사 및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의 직원에게도 입학을 허용하는 등 사내대학 입학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11년 평생교육법시행령 개정)

### < 사내대학 · 계약학과를 통한 선취업 후진학 사례 >



## 2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취업 지원

-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전에 지원받던 각종 급여가 중단되어 취업보다 대학 진학이나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를 졸업한 기초수급자 자녀가 취업시 대학 진학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 취업자녀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자격 중지 요건을 완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12년 예산에 반영,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3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 대학 확대

- 또한, 재직근로자가 학업 중단없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 제도 운영을 개선하고, 거점 국립대 및 주요 사립대로 도입 대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11학년도 : 중앙대, 건국대, 경북대 등 9개 대학 시행 중

## 산업계의 교육 참여 확대

< 현장교육 참여 기업에 대한 신규 인센티브(요약) >

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채용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li> <li>- 청년채용시 1,500만원 → 2,000만원으로 인상</li> </ul>
② 취업계약 입학제도 및 취업인턴제 참여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요경비를 일반R&amp;D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포함</li> <li>- 현행 조특법상 최고수준인 25%(대기업 3~6%)</li> </ul>
③ 현장실습 우수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기능요원 추천 확대</li> </ul>
④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목표제 도입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경영평가지 평가항목에 반영 검토</li> </ul>

### 1 특성화고·마이스터고생 채용 확대

- 앞으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을 채용하는 기업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청년채용시 1,500만원보다 500만원 인상된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업의 병역미필자 채용기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병역제도 개선 역시 지속 추진된다.

-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시기(당초 '12년)의 한시적 연장을 검토하고,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산업기능요원에의 편입 자격도 개선한다. '12년 시행되는 고졸자 취업시 4년간 입영연기 허용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 아울러, 정부와 산업계간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마련하고, 지난 12월 1일 마이스터고생의 채용과 현장실습 지원 등을 약속한 삼성전자의 사례가 다른 기업으로까지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2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발견 프로젝트

- 기술·기능인의 성공적 활동 사례를 발굴·홍보하여 기업의 채용을 확대할 뿐 아니라 우수 기술·기능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풍토를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3 |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수행

- 또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 및 역량 개발을 선도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지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 \* 기술직·사무직 신입 사원의 일정비율을 자율적 목표로 설정
  - ※ 동서발전 : 기술직 20명 중 6명(30%)을 마이스터고 졸업자로 채용('11)
- 정부기관의 '기능인재추천채용제'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중심으로 운영하고, 공기업과 출연연구기관이 사내대학을 설립하거나 계약학과를 개설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4 산업계 중심 전문분야별 대학(동업자대학) 설립

- 동종·유사 업종 기업들이 공동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 인력을 직접 양성할 수 있는 동업자대학 설립이 강조된다.
- 이를 위해, 컨소시엄형 사내대학의 경우 설립요건이 완화되고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 한국폴리텍대학(11개 대학, 35개 캠퍼스) 중 일부 캠퍼스를 민·관 협력의 시범 동업자대학으로 지정·운영하고, SC 등과 함께 업종별 수요에 맞는 교과과정을 설계하고 기업의 인력, 현장전문가 등이 겸임교수로 참여한다.

#### 5 산업계 주도 현장 직업교육 관리체제 구축

< 현장 직업교육 강화 관리체제(안) >



- 산학협력을 확충하고, 산업 수요에 기반한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계 주도의 현장 직업교육 관리체제가 구축된다.
- 특히, 산업계의 직업교육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직업교육 실행 전반을 주관할 「직업교육강화추진단」이 민·관 합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 설치·운영된다.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과 교과부·지경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게 되며, 산업계 관계자와 교과부, 지경부, 고용부, 중기청 등이 참여하게 된다.

- 또한, 기업과 학교·학생간 현장교육 중개 및 사후관리를 위해 지역 상공회의소(또는 고용센터)를 활용하여 「직업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 현장교육 관련 정책결정 및 관계부처간 의사 조정 등은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루어진다.
- 아울러,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개발하여,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직업교육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 이번에 확정된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방안」에 대해 교과부 장관은 과제별 세부실천계획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번 학업·취업 병행 직업교육체제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마이스터고·특성화고생의 취업이 확대되어 산업체는 우수한 현장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근로자는 학업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계속교육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끝으로, 교과부 장관은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 보다 많은 기업이 현장중심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역할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붙임. 과제별 주관부처(서) 연락처  
(별첨.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

## 【붙임】 과제별 주관부처(서) 연락처

과 제	담당부서 (전화번호)
1. 마이스터고 취업계약 입학제도 2.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취업인턴제 시행	교육과학기술부 진로직업교육과 (2100-6396,6397)
3. 세액공제제도 관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2150-4131)
4. 과정형 공인 민간자격제	교육과학기술부 진로직업교육과 (2100-6392)
5.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 활성화	교육과학기술부 진로직업교육과 (2100-6391)
6.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취업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2023-8123)
7. 재직자 특별전형제도	교육과학기술부 진로직업교육과 (2100-6391)
8. 공공기관 채용목표제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2150-5574)
9. 산업계 중심 전문분야별 대학(동업자대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2110-7253)
10. 병역제도 관련	국방부 인력관리과 (748-5137)